

# 광주 서구청 강영미 에페 개인전 '우승 씨르다'

### 남녀오픈선수권 겸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서 최인정 15-13 제압 최근 절정 기량 선보이며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단체전은 3위

광주 서구청 강영미(36)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강영미는 지난 24일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 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여자 에페 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최인정(계룡시청)을 15-13으로 제압했다. 8강전에서는 송세라(부산시청)를 15-10, 4강에서 이신희(강원도청)를 15-14로 차례로 꺾었다.

지난해 11월 펜싱국가대표로 선발된 강영미는 최근 절정의 기량을 유지하면서 아시안게임 메달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쑤이웨이(중국·5위)를 11-7로 꺾고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팀의 맞선으로서 2020도쿄올림픽 펜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일궈내는 등 큰 대회

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박광현 서구청 펜싱팀 감독은 "강영미는 상대방의 칼을 찌르고 공격하는 스타일인데 최근 빈틈을 겨냥하는 기술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보완이 주효하다면 아시안게임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대표로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려면 최종 관문이 남아있기는하나 부상 등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구청은 이번 대회 단체전에서도 3위에 올라 최강팀의 면모를 선보였다.

8강에서 경기도청에 45-43으로 승리한 서구청은 4강에서 계룡시청에 44-45로 아쉽게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서구청 펜싱팀 선수들이 2022 전국 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여자 에페 개인전 우승, 단체전 3위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노선경(왼쪽부터), 강영미, 허다정, 최은숙. <서구청 제공>

## 연기된 프로당구 PBA 6차투어 2월 25일 개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연기된 프로당구 PBA 6차 투어(LPBA 7차)가 다음달 25일 열린다.

프로당구협회(PBA)는 26일 "기존 26일 개최 예정이던 PBA 6차 투어(LPBA 7차)를 2월 25일로 연기하고, PBA 팀 리그 6라운드 잔여 경기는 3월 초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2월 25일로 예정됐던 팀 리그 포스트시즌은 3월 11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PBA는 지난 21일 PBA 팀 리그 6라운드 진행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4일 차 3경기부터 중단한 바 있다. 이어 26일 예정된 PBA 6차 투어를 잠정 연기했다.

바뀐 일정 따라 PBA는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PBA 6차 투어(LPBA 7차)인 '웰컴저축은행 웰빙 PBA-LPBA 챔피언십'을 진행한다.

중요 직후인 3월 초에는 팀 리그 6라운드 잔여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 장소 및 일정은 최종 협의 중이다. PBA-LPBA 왕중왕전 격인 'PBA 월드챔피언십'은 예정대로 3월 19~28일 개최된다. /연합뉴스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라파엘 나달(5위·스페인)이 테니스 사보탈로프(14위·캐나다)를 상대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계 정상 향해...한국 프로탁구리그 첫 시즌 연다

### 내일 개막 5개월간 대장정 손목 부상 신유빈 출전 불발

한국 탁구인들의 염원이던 한국프로탁구리그(KTTL)가 역사적인 첫 시즌을 시작한다.

2022 두나무 KTTL 정규리그가 28일 오후 6시 경기 수원 광고씨름체육관 안에 마련된 전용 경기장 '스튜디오 T'에서 열리는 여자부 명문 대한항공 공과 포스코에너지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5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KTTL이 한국 탁구의 세계 톱 레벨 복귀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탁구인과 팬들은 기대한다.

기업팀과 국군체육부대로 구성된 코리아리그(1부 리그)와 지방자치단체팀으로 꾸려진 내셔널 리그(2부 리그) 총 27개 팀이 총 222경기를 치른다.

정규리그 뒤에는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을 치른다.

코리아리그 남자부는 KGC인삼공사, 보람할렐루야, 미래에셋증권, 국군체육부대,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생명 등 7개 팀, 여자부는 삼성생명, 포스코에너지, 한국마사회, 대한항공, 미래에셋증권 등 5개 팀이 경쟁한다.

내셔널리그 남자부에서는 서울시청, 부천시청, 안산시청, 인천시청, 영도구청, 산청군청 등 7개 팀이, 여자부에서는 안산시청, 수원시청, 대전시청관리공단, 파주시청, 금천구청, 양산시청, 포항시체육회, 장수군청 등 8개 팀이 경쟁한다.

코리아리그 여자부는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경쟁 구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삼성생명과 포스코에너지, 대한항공이 우승을 다툴 것으로 보였으나 최약체로 분류되던 한국마사회가 최근 열린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일구면서 초대 KTTL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최대 관전 포인트인 여자 탁구 '신구 에이스' 신유빈(대한항공)과 전지희(포스코에너지)의 자존심 대결이 개막전에서 불발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신유빈은 손목 부상으로 개막전에 나서지 못한 다.

전지희는 허리 부상 때문에 종합선수권대회에 나서지 못했으나 KTTL 개막전 출전을 위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코리아리그 남자부에서는 국가대표 이상수, 조대성, 안재현을 보유한 삼성생명과 장우진, 조승민이 있는 국군체육부대가 우승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경기는 '5매치·3게임제'로 치러진다.

1·2단식, 3복식, 4·5단식 순서로 매치가 진행되며, 각 매치는 5게임이 아닌 3게임으로 구성된다. 중국 등 대다수 프로리그가 5게임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게임 수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수가 줄어들어 의외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3게임제가 세계 탁구계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KTTL이 선도적으로 3게임제를 도입했다.

매치 스코어가 3-0인 경우, 경기를 끝내지 않고 네 번째 매치(4단식)를 진행하는 점도 독특하다. 매치 스코어 4-0으로 승부가 갈리면 승리팀에만 승점 4점을 주고, 3-1이나 3-2로 끝난 승리팀에 승점 3점, 패배 팀에 승점 1점을 준다. /연합뉴스

## 윤성빈 "지금 성적으론 올림픽 메달 힘들어"

### 월드컵 부진에 냉정하게 평가 후반부 상승세...다소 희망

세 번째 올림픽을 앞둔 '아이언맨' 윤성빈(28·강원도청)은 자신에게 매우 냉정했다.

윤성빈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26일 진행된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 비대면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성적으로는 메달이 사실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2014년 소치 대회에서 올림픽 무대에 데뷔한 윤성빈은 4년 전 평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 아시아 썰매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후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에서 2018-2019시즌 종합 2위, 2019-2020시즌 종합 3위에 오르고 2018-2019시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세계 정상급 기량을 유지했다.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치러진 2021-2022시즌 월드컵에서는 부진했다. 마지막 8차 대

회까지 한 번도 시상대에 서지 못했다.

부진의 이유를 묻자 윤성빈은 "내가 잘 못 해서다. 남 탓할 것도, 환경 탓할 것도 없다.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윤성빈은 또 "올림픽이 열릴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경기까지는 2주 남았는데 내 기량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이뤄진다면, 드라마틱한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비관적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엄격한 윤성빈의 대답에 오히려 취재진이 당황했다. 기자들은 어떻게든 윤성빈이 희망 섞인 답을 한 마디라도 말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한 기자는 윤성빈이 월드컵 7차 대회에서 6위, 8차 대회에서 10위를 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며 대회를 마친 점을 언급했다.

그러자 윤성빈은 "경기력이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10위 정도를 유지했을 뿐이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다. 10위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썰매는 원래 관심받던 종목이 아니다. 평창 대회는 홈 올림픽이다 보니 관심을 안 받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을 뿐이다"라며 "지금도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나달 4강행...메이저 최다 우승 '한발짝 더'

### 우승 뎀 21회로 신기록

라파엘 나달(5위·스페인)이 4시간 8분 접전 끝에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7천500만 호주달러·약 644억원) 남자 단식 4강에 진출했다.

나달은 25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9일째 남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테니스 사보탈로프(14위·캐나다)를 3-2(6-3·6-4·4-6·3-6·6-3)로 물리쳤다.

2019년 준우승 이후 3년 만에 호주오픈 4강에 진출한 나달은 마테오 베레티니(7위·이탈리아)와

준결승에서 만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신기록을 달성한다.

현재 이 부문 기록은 나달과 노박 조코비치(1위·세르비아), 로저 페더러(17위·스위스)가 함께 보유하고 있는 20회다.

이번 대회에서 나달이 우승하면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에서 21번 우승하는 선수가 된다. 올해 호주오픈에 조코비치와 페더러는 출전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해작: 도깨비 깃발
2관	해작: 도깨비 깃발
3관	킹메이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4관	킹메이커
5관	킹메이커
6관	해작: 도깨비 깃발
9관	해작: 도깨비 깃발, 극장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7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극장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쌍2게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극장판 천재 추리 탐정 설록홀츠
8관	씨네캐슬 경관의 피, 특송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2022.01.04.(화)~ 29.(토)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2, 8379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1회 정기연주회 타임머신**  
일시: 2022.02.18.(금)~19.(토)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524-5086